

백양꽃(*Lycoris koreana* Nakai)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

이종원¹, 정경숙², 강신호¹

¹세명대학교, ²중원대학교

New Taxonomic Treatment of *Lycoris koreana* Nakai

Lee Jong-Won¹, Kyong-Sook Chung² and Shin-Ho Kang¹

¹Semyung University, Jecheon 27136

²Jungwon University, Chungbuk 28024

백양꽃(*Lycoris koreana*)이 속해 있는 상사화속(*Lycoris*)은 중간 잡종이 쉽게 일어나 많은 자연교잡종을 가지고 있어 식물의 종분화와 진화를 연구하는데 흥미로운 분류군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명백한 분류학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종의 분류학적 위치의 설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계급의 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한국산 상사화속의 종 분류는 그동안 많은 형태학적, 분계학적, 화분학적, 세포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아직도 도감과 많은 문헌에서 오류와 오동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양꽃에 대하여서는 Nakai에 의해 신종으로 설정된 이래 일본에 분포하는 동속 식물과의 관계 분석의 오류로 계급의 설정에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백양꽃은 전라남도 백양산에 분포하고, 포가 자주색이고, 꽃의 크기가 작으며, 화사와 화주가 적색 또는 암적색인 특징으로 Nakai에 의해 신종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Nakai와 Lee는 *L. koreana* 가 한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특산종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백양꽃의 실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Lee and Oh는 *L. radiata*로 동정하였고, Yang은 *L. koreana*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고 *L. sanguinea*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oyama는 *L. sanguinea*에 대하여 *L. sanguinea*와 *L. kuishiana*를 비교하여 수술이 화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외에는 *L. koreana*와 차이가 없음을 들어 각각 *L. sanguinea* var. *sanguinea*, *L. sanguinea* var. *kuishiana* 그리고 *L. sanguinea* var. *koreana*로 재설정 하였고 이는 한국과 일본학자들에 의해서도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L. koreana*의 종(species)으로의 계급 부여와 한국 특산식물 설정의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Lycoris*, 백양꽃, 분류학적 재검토, 분류학적 계급 설정